

마가복음 1

Tape #C2517

By Chuck Smith

마가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셨을 때 열두살 가량의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따라서 그가 쓴 복음은 베드로가 예수님에 관하여 말한 것들을 듣고 쓴것으로 여겨집니다. 베드로가 마가를 자신의 아들이라고 부른 것은 믿음의 아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사역의 동역자였으며, 그로 인하여 베드로가 예수님의 공생애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자주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에 관해 전한 베드로의 설교들을 자주 접할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중에서 마가가 개인적인 경험을 기록한 유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찾아볼수 없는 짙막한 내용으로, 겐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붙잡히는 장면입니다. 마가복음에 따르면, 열두살 가량의 소년이 한 병정에게 붙들리자 곁에 걸친 베훤이불을 버리고 발가벗은 몸으로 도망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소년이 바로 마가 자신이라고 생각되는데, 그가 열두 살 정도 되었을때 우연히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곳에 있다가 쥘게 된개인적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마가의 어머니는 마리아 라는 부유한 여인이었는데, 예루살렘에 위치한 마리아의 집은 교회의 모임장소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을 때 성도들은 마리아의 집에 모여 기도하고 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천사의 인도로 감옥을 나와 마리아의 집의 문을 두드리자 한 소녀가 나왔습니다. 그 소녀는 문 앞에서 있는 사람이 베드로인 줄 알고 너무 기쁜 나머지 문도 열어주지 않은 채 안으로 들어가 베드로가 왔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모여 있던 사람들은 그 소녀가 본 것은 그의 천사일 거라며 입을 모았습니다.

마리아에게는 바나바 라는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울의 일차 전도여행때 함께 동행한 사람입니다. 마가도 그 때 함께 갔지만 전도 여행중에 그들과 헤어집니다. 그 이유는 알수 없지만, 추측하건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아시아 지역에 가는것을 두려워 했던것 같습니다. 아무튼 바울은 전도여행 도중에 마가가 떠나 버린것에 대해 매우 격분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차 전도여행 때 바나바가 마가를 데려 가려고 했지만 바울의 반대로 바나바와 바울은 크게 다투었고, 결국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아시아로 떠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마가의 이러한 불화는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요청에 따라 마가가 로마에서 사역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마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한 때는 바울과 함께 로마에 있었을 때라고 추정됩니다. 마가복음은 주후 63년 이전에 쓰여진 최초의 복음서들 중의 하나로서 로마인들을 위해 쓰여졌습니다. 마가는 바울과 함께 로마에 있으면서 유대인들에게는 필요하지 않은 유대인의 생활 관습에 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가가 로마인들을 위해서 이 복음을 쓴것이 확실하다고 생각됩니다. 마가는 간결한 문체로 이 복음서를 쓰면서도 세밀한 묘사를 피하면서 광범위한 지역들을 다루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 후반기에 마가를 자기에게 데려 오도록 부탁하는데 (딤후 4:11), 그것은 여러 면에서 마가가 바울에게 위로와 도움이 되었음을 증명해 주는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복음의 시작이라 .” (1: 1)

성경에서 우리는 세 가지 형태의 ‘시작’을 볼 수 있습니다 . 요한복음 1: 1 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라”고 기록되어 있고 , 창세기 1: 1 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서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 여기에서 예수님의 출 생에 관한 사실은 마태와 누가에게 맡기고 , 세례 요한의 세례로 그 내용을 이어 갑니다 .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고 예수 님의 사역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져 있습니다 . 바울과 함께 로마에 있을 때 마가는 바울이 로마서에서

한 고백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 왜냐하면 마가복음 여러 곳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는 바울의 고백이 나타나 있는데 , 이것은 예수께서 복음에 대해 언급하신 말씀을 바울이 인용하여 고백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

마가는 예수님을 종으로 묘사합니다 . 마태가 예수님을 왕과 사자로 묘사하는 것과는 달리 , 마가는 예수님의 종됨 (Servanthood) 을 강조합니다 . 각 복음서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마태는 사자로 , 마가는 종으로 , 누가는 인자로 , 요한은 하나님께의 이들로 각각 다르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 마가복음은 예언을 인용하는 것으로 시작되는데 , 처음은 말라기에서 시작하여 이사야의 예언으로 연결됩니다 .

“보라 ,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 저가 네 길을 예비하리라 .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 (1: 2-3)

2 절 말씀은 말라기의 예언으로 세례 요한을 예수님의 선구자로 보는 것이며 , 3 절 말씀은 이사야의 예언으로 세례 요한을 광야 : 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외치는 자’로 보는 것입니다 .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 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 대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 나는 굽혀 그의 신들배를 풀기도 감 당치 못하겠노라 .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 에서 요한 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갈리집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받더니 ,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 (1: 4-15)

이 구절에서 마가는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 간략하게 쓰면서 관련된 구약성경의 예언을 인용했습니다 . 그 후에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신 예수님이 요단 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분에게 내려오시고 ,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1 : 11) 고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 여기에서 우리는 아들과 성령과 아버지가 삼위일체가 되시는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 에서 40 일동안 사단에게 시험 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셨고 , 천사들의 수종을 받았습니 다 . 그러나 마가는 시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고 바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 하시는 부분을 짧게 쓰고 있습니다 .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 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 오너라 .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 곧 그물을 버려 두고 좃으니라 .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보시니 ,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잡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샅군들과 함께 배에 버려 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 (1: 16-20)

마가는 사건의 배경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베드로와 안드레 ,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자 마자 그물을 버리고 그분을 좃 은 것으로 보여지기 쉽습니다 .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 이 사건은 예수께서 그 들을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신 것을 의미합니다 . 그들은 이미 여러 번 예수님을 만났고 ,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어 그분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 사실 요한복 음에서 요한은 먼저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가 그의 형제 베드로를 찾아가 자신이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하면서 베드로를 예수께 데려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 그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이적들을 직접 보았으며 마침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그분의 부르심에 즉시 그물을 버리고 순종한

것입니다 .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주목해 보십시오 .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이 샅꾼들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아 유복한 환경의 젊은이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 예수께서 곧 인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못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 (1: 21-22)

서기관들은 가르칠 때 결코 자신들의 견해를 피력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 그들은 항상 ‘랍비 헬렐은 말하기를 ---’ 하는 식으로 다른 랍비들의 말을 지주 인용 합니다 . 뿐만 아니라 , 그들은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라고 말하는 법이 결코 없었습니다 . 그래서 그들의 말에는 권위가 없었습니다 .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는 힘과 권위가 있었습니다 . 예수님은 산상보훈에서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 누구든지 실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그 당시 사람 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크게 놀랐습니다 . 그들은 항상 다른 사람의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는 가르침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그들은 참된 권위를 가진 가르침에 접하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

‘미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 지라 .’ (1: 23-26)

야고보는 야고보서에서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고 말합니다 . 이 말은 단지 안다는 사실만으로 그리스 도인이 되고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 왜냐하면 ,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단순히 하나님을 안다는 것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 사람들은 자주 자신이 무신론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 하지만 , 이 정도로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 단지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 줄 뿐입니다 . 왜냐하면 , 어리석은 지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 그렇다면 당신은 어리석은 사람은 아닙니다 . 그렇다고 그 사실이 당신이 구원받았음을 말해 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구원은 , 예수 그리스도와의 생 동적인 관계 (vital relationship) 로 들어간 것을 믿음으로써 아는 것입니다 . 즉 ,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음으로써 변화된 삶을 의미합니다 . 누구든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생명으로 변화되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23 절에서 귀신은 예수께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 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라며 크게 외쳤습니다 . 그 귀신은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이들로 인정했습니다 . 하지만 그 귀신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 우리 역시 주님의 능력을 알고 ,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 구원이란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를 맺을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변화되어지는 경험을 말합니다 . 예수님이 권위를 가지고 꾸짖으시며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귀신에게 명령하자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왔습니다 . 마가는 ,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을 자주 다루고 있습니다 . 이 사실은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들을 멸하시는 능력이 있음을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 이에 대해서는 5장에서 더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다 놀라 서로 물러 가로되 ‘이는 어찌이뇨 ? 권세있는 새 교훈이로다 . 더러운 귀신 들을 명한 즉 순종하는도다 .’ 하더라 ---“ (1: 27-28)

귀신이 쫓겨나는 광경을 본 사람들은 참으로 권위있는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과 귀신들도 예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사실에 놀라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 그 후 예수님의 소문은 갈릴리 온 지방에 퍼졌습니다 .

“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밀념 } 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 (1:29-39)

예수님은 매우 분주한 나날을 보내셨습니다 . 더러운 귀신들린 사행 1 게서 귀 신을 쫓아내자 수많은 사람들이 병자와 귀신들린 자들을 고지려고 시몬 베드로 의 집 앞에 모여 들었습니다 . 얼마나 늦은 시간까지 예수께서 일을 하셨는지 알 수 없지만 , 우리 같으면 그 다음날은 너무 지쳐서 아침 늦도록 영적으로 늘어져 버렸을 것입니다 . 하지만 , 주님은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 흥미로운 점은 , 예수님은 육체적인 쉽을 통해 영적으로 새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 아무도 일어나지 않은 이른 아침 , 그분 은 기도를 통해 조용히 하나님 아버지와 만남으로써 쉽을 얻으셨습니다 . 기도의 필요성에 대한 증거로써 예수께서 기도하셨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도 새 힘을 얻고 , 삶을 인도받으며 생명을 구하기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 하물며 허물많은 우리야말로 언제나 기도가 필요 하지 않겠습니까? 이를 통해 우리는 기도가 믿는 자의 영적 생활에 얼마나 중요 한지 알 수 있습니다 .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리어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케 하실 수 있나이다 .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대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 엄히 경계하사 곧 보내시며 가라사대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 깨끗케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것을 드러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 (1: 40-45)

예수님은 자유롭게 활동하시기를 원하셨지만 , 문둥병자가 깨끗하게 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불러드는 군중들 때문에 동네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한적한 곳에 계셔야만 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려드는 사람들이 밀치고 넘어질 정도로 거칠어지자 예수님은 종종 배에 오르신 뒤 육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배를 띄우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 예수께서 고침을 받은 문둥병자에게 아무에게도 말 하지 말라고 하신 또 다른 이유는 그 사람의 행동을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라고 생각됩니다 . 하지만 그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모든 사람에게 알렸습니다 . 사실 우리의 삶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역사를 숨긴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증거하는 일은 당연한 것입니다 .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그것을 나누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경험이 삶의 중대한 부분이 되어 자연스럽게 증거하는 것이지 결묘 의지적으로 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 그러므로 문둥병자였던 그 사람은 굳이 정기 모임이나 간증집 회를 가질 필요도 없었습니다 .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삶에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에 반응하며 감격해 합니다 . 그리고 자연히 자신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 우선 문둥병자가 ‘예수님의 원하심’ (if you are willing) 에 호소했다는 것입니다 . 병을 고치시기 원하셨던 예수님은 민망히 여기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그 다음에 예수께서 그를 만지셨다는 사실입니다 . 그 당시 문둥병자를 만지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 따라서 문둥병자를 만지게 된 사람은 일정기간 동안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 그런데 예수께서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 하지만 , 그

행위 자체가 위법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 왜냐하면 주님이 만지는 순간에 문둥병이 깨끗하게 되었기 때 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너는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정결의식을 행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 하나님께서 불치병으로 인해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사람 들이 그 병에서 나왔을 경우 ,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율법을 규정해 놓은 사실 은 매우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 하지만 어떻게 불치병에서 나올 수 있단 말입니 까 ?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정말 원하실 때 하나님 스스로 일하실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 그것이 바로 ‘정결케 된 문둥병 환자’에 대한 규제입니다.

그 규례는 , 문둥병 환자가 제사장 에게서 진찰받은 후 칠 일 동안 격리시켰다가 종기와 부스럼과 색점 등을 관찰합니다 . 그리고 일단 깨끗해졌다고 판명이 되면 제사장은 그에게 새 두 마리를 가져오게 한 후 , 한 마리는 잡고 다른 한 마리는 산 채로 죽인 새의 핏물에 담갔다 꺼내어 들로 날려 보냅니다 . 이런 의식을 통해 깨끗하게 되면 그는 성 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문둥병과 같은 불치의 병이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고칠 수 있는 여 지를 남겨 두셨는데 ,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나 일하실 수 있는 여지 를 마련해 놓으셨겠습니까 ?

성경에서 문둥병이 죄에 대한 모형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사 실입니다 . 문둥병은 신경세포를 하나하나 파괴해 가는 질병입니다 .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자신들의 모습이 일그러져가도 감각이 없기에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 다 . 처음에는 손과 발부터 감각을 잃기 시작합니다 . 문둥병자들은 통증이든 간지 림이든 감각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종종 쥐들이 그들의 발을 감아 먹어도 모르 고 , 뜨거운 난로에 손이 닿아도 감각이 없어서 데기도 합니다 . 더 심한 경우에 는 , 신체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기도 합니다 . 어떤 사람은 문둥병이 걸리면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는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 문둥병자의 손이라고 해서 저절로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 그들의 손이나 발에 감각이 없기 때 문에 지주 데거나 다치게 되어 상처를 입게 되어 결국에는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죄 , 그것은 사람을 무감각하게 만드는 효력을 지니고 있습니 다 . 즉우리의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함으로써 점진적으로사람을파괴시키기 때 문에 ,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으시면 치유가 불가능합니다 . 그래서 예 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